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연숙¹ · 우주현² · 현명선³

안동과학대학 간호학과¹, 경동대학교 간호학과², 아주대학교 간호대학³

Factors influencing on Recovery 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Choi, Yeon Sook¹ · Woo, Ju Hyun² · Hyun, Myung Sun³

¹Department of Nursing, Andong Science College, Andong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 Dong University, Goseong

³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uwo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influencing factors on recovery among alcoholic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23 hospitalized pati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 in two hospitals in Gyeonggi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6 to June 4, 2012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Hanil Alcohol Insight Scale,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and Recovery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8.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Recovery is positively related to abstinence self-efficacy and duration of abstinence. Recovery differed by insight type, gender, and occupation. Insight, duration of abstinence, gender, and occupation accounted for 59.1% of the variance in recovery of the alcoholics. **Conclusi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recovery among alcoholics were insight, duration of abstinence, gender, and occupation. Programs focusing on insight, abstinence self-efficacy, and abstinence maintenance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When developing the programs, the environmental context in which the alcoholics work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Alcoholics, Recovery of function, Self-efficac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중독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질병이다(Mock, 2007). 특히,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분위기는 알코올중독이 한국인의 정신 질환 중에서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무절제한 음주습관과 음주로 인한 문제가 전 연령층에 확산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성인 20~59세의 월간 음주율이 58.9%로 보고되고 있으며, 음주자 중 폭음을 하는 경우도 63.4%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고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알코올중독은 개인차원뿐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회복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이며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알코올의존자들에게서 보이는 충동적이고, 무절제하며, 높은 자각추구와 보상의존인 중독행위 등의 특성(Kim, Lee, Jung, Park, & Kim, 2012) 환자들의 회복을 늦추며, 질병의

주요어: 알코올의존환자, 회복, 자기효능감

Corresponding author: Hyun, Myung Sun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5 Woncheon-dong, Yeongtong-gu, Suwon 443-721, Korea.

Tel: +82-31-219-7014, Fax: +82-31-219-7020, E-mail: mhyun@ajou.ac.kr

투고일: 2012년 10월 24일 / **수정일:** 2012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4일

결과를 만성화시킨다.

Kim 등(2001)은 알코올의존 환자의 대부분이 병식이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치료 및 회복에 있어서 자신이 알코올의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알코올의존 환자의 낮은 병식수준은 조기개입을 어렵게 하고, 음주 자체에 대한 치료보다는 신체적 합병증 치료에만 초점을 두게 되어 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게 한다(Park & Won, 2008). 따라서 생물학적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코올의존 환자임을 자각하는 진정한 병식의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금주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음주행위를 자극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용한 대처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음주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ae, 2005). Monahan과 Lannutti(2000)의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금주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알코올 소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weon(2002)은 알코올의존자의 금주 자기효능감이 지속적인 금주를 실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금주 자기효능감이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관한 연구를 보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알코올의존자의 회복경험 연구(Chun, 2010; Park, 2008)와 알코올중독자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 정도(Hong & Lee, 2009), 알코올의존자의 회복과 관계가 있는 생태체계적 요인(Jung, 2006)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즉,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나 조사연구 및 상관관계 연구가 있을 뿐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식, 금주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특성 및 음주 관련 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를 마련하는데 방향과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입원한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알코올의존자의 회복, 병식, 금주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

악한다.

- 알코올의존자의 회복과 금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알코올의존자의 병식 상태와 일반적 특성 및 음주 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의 차이를 파악한다.
-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경기도 정신병원에 있는 알코올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의존 환자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2개 정신병원의 알코올센터에서 알코올의존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123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 수가, 예측변인을 자기효능감, 병식과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변인 등 7~9개로 하였을 때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중간크기), 검정력 .80의 수준에서 103명에서 107명이다.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2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6명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123명이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DSM-IV-TR의 진단기준에 의해 알코올의존으로 진단받고 1주 이상 해독과정을 거친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
- 중등도의 기억장애를 동반한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이외의 다른 물질 사용장애가 없는 자
-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언어를 표현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

3. 연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과 음주 관련 특성 5문항, 금주 자기효능감 20문항, 병식 20문항, 회복 25문항으로 총 7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병식

대상자의 병식 정도는 Kim 등(1998)이 개발한 한일 알코올의존 병식 척도(Hanil Alcohol Insight Scale, HAIS)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질문과 부정적 질문으로 이루어진 3점 척도이다. 본 도구는 현실감(자기지향, 타인지향), 동기, 목표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지향 현실감에는 문제지향 병식과 조절의존 병식이 포함되어있으며, 타인지향 현실감에는 주위지향 병식이 포함되어 있다. 동기영역은 입원/치료병식이, 목표영역에는 단주지향 병식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20점까지이며, 병식의 상태를 점수의 총합이 3점 이하일 경우 부정병식 상태(poor), 4점에서 15점은 부분병식 형성상태(fair)로, 16점 이상일 경우는 병식 형성상태(good)로 판정하고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sim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항목은 .87이었으며, 항목별로는 .72~.81이었다.

2) 금주 자기효능감

금주 자기효능감은 DiClemente (1994)가 개발한 금주 자기효능감 도구를 Kim (1996)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 5점 척도로서 하위영역은 부정적 정서, 사회적·긍정적 상황, 신체적 및 기타 어려움, 금단 및 갈망 등의 상태에 대한 자기효능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0~8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금주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 (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3) 회복

회복은 Jung (2006)이 개발한 회복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은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11개 문항)과 '생활양식의 변화'(14문항)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회복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 (Jung, 2006)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2개 병원 알코올센터 수간호사와 부서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하여 연구 수행의 허락과 협조를 받았다. 각 병원의 알코올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의존 환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의 유지, 개인 자료의 보장 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도중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였다. 총 129명의 환자가 설문지 조사에 응하였으며, 그 중 응답내용이 불충실한 6명을 제외한 12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숫자화하여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 관련 특성, 회복과 병식, 금주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회복과 제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병식 상태와 일반적 특성 및 음주 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의 차이검증은 t-test나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이용 하였다.
- 대상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 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대부분이 남성(87.0%)이었으며, 연령은 40~49세가 38.2%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36.6%, 39세 이하가 13.0%였다. 교육 정도는 고졸이 56.1%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이하가 22.8%, 대학을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람이 21.1%였다. 결혼관계는 이혼 하거나 사별한 사람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인 사람은 35.0%였으며, 미혼은 26.8%였다. 종교에 대해서는 69.9%가 종교가 있었으며, 30.1%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은 없다고 60.2%였고, 있다고 39.8%로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음주 관련 특성은 첫 음주 연령은 15~19세가 54.5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0~24세 28.5%였다. 술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횟수는 5회 이하가 64.2%로 가장 많았으며, 6~10회 17.9%였다. 단주경험 여부에서는 있다가 74.0%, 없다가 26.0%였으며, 입원 전 단주기간은 평균 15.27±21.08개월이었다.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가 56.1%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Behaviors of Subject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Range
Age (year)		49.2±9.4	30~70
	< 39	16 (13.0)	
	40~49	47 (38.2)	
	50~59	45 (36.6)	
	> 60	15 (12.2)	
Gender	Male	107 (87.0)	
	Female	16 (13.0)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28 (22.8)	
	High school	69 (56.1)	
	≥ College	26 (21.1)	
Marital status	Married	43 (35.0)	
	Unmarried	33 (26.8)	
	Divorce, separation	47 (38.2)	
Religion	Yes	86 (69.9)	
	No	37 (30.1)	
Occupation	Yes	49 (39.8)	
	No	74 (60.2)	
First drinking age (year)		18.7±4.7	6~48
	≤ 14	11 (8.9)	
	15~19	67 (54.5)	
	20~24	35 (28.5)	
	≥ 25	10 (8.1)	
Admission frequency		5.81±6.353	1~36
	≤ 5	79 (64.2)	
	6~10	22 (17.9)	
	11~20	11 (8.9)	
	≥ 21	11 (8.9)	
Experiences of abstinence	Yes	91 (74.0)	
	No	32 (26.0)	
Duration of abstinence (month)		15.27±21.08	0~96
Family history of alcoholics	Yes	69 (56.1)	
	No	54 (43.9)	

2. 대상자의 회복, 병식, 금주 자기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회복과 병식, 금주 자기효능감 점수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회복은 평균값이 77.67±13.70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보면, ‘음주인식’이 39.63±8.65점, ‘생활방식의 변화’가 38.05±8.45점이었다. 병식은 평균 값이 9.02±8.03점

으로 병식의 ‘부분형성 상태(fair insight)’에 속했으며, 병식 부분 중 ‘자기지향 현실감’에 속하는 문제 지향 병식(POI)은 1.98±1.76, 조절/의존 병식(C/DOI)은 -0.87±2.18이었고, ‘타인지향 현실감’을 나타내는 주위 지향 병식(SOI)은 1.89±1.81, 병식의 부분 중 ‘동기’에 해당되는 입원/치료 병식(H/TOI)은 2.37±2.09였으며, 목표’에 해당하는 단주 지향 병식(AOI)은 3.65±2.11이었다. 그리고 병식 상태의 분포를 보면, 부정병식 형성 상태는 26.8%, 부분병식 상태는 44.7%, 병식형성 상태는 28.5%였다.

금주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40.63±17.87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보면, ‘신체 및 기타 어려움’에서의 자기효능감이 11.57±5.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금단 및 갈망을 경험하는 상태’에서의 자기효능감이 10.31±4.83점, ‘사회적·긍정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은 10.02±5.29점, ‘부정적 정서’에서의 자기효능감은 8.74±5.08점 순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on of Study Variables (N=123)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Range
Recovery	Total	77.67±13.70	55~111
	Drinking cognition	39.63±8.65	
	Change of lifestyle	38.05±8.45	
Insight	Total	9.02±8.03	-13~20
	POI	1.98±1.76	
	C/DOI	-0.87±2.18	
	SOI	1.89±1.81	
	H/TOI	2.37±2.09	
	AOI	3.65±2.11	
	Poor	33 (26.8)	
	Fair	55 (44.7)	
Good	35 (28.5)		
Abstinence self-efficacy	Total	40.63±17.87	0~80
	Negative emotion	8.74±5.08	
	Social positive	10.02±5.29	
	Physical others	11.57±5.09	
	Withdrawal craving	10.31±4.83	

POI=problem-orientated insight, C/DOI=control/dependence-oriented insight, SOI: surrounding-orientated insight; H/TOI=hospitalization/treatment oriented insight; AOI=abstinence-oriented insight.

3. 대상자의 병식 상태와 일반적 특성 및 음주 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의 차이 검증

대상자의 병식 상태와 일반적 특성 및 음주 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병식상태에 따라 회복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F=58.61, p<.001$). 사후 검증한 결과 병식형성 상태인 대상자가 부정병식 상태나 부분병식 상태

인 대상자보다 회복 점수가 높았으며, 부분병식 형성 대상자가 병식 형성 대상자보다 회복점수가 낮았으며, 부정병식 대상자보다는 회복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회복 점수가 높았으며($t=2.78, p=.006$),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회복 점수가 높았다($t=2.08, p=.039$). 그러나 연령대, 교육 정도, 결혼관계, 종교에 따라서는 회복의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3). 또한, 음주 관련 특성에서는 단주를 경험했던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회복의 점수가 높았다($t=2.46, p=.015$). 그 밖의 첫 음주연령, 입원횟수, 가족력에 따라서는 회복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대상자의 회복과 금주 자기효능감 및 입원 전 단주기간과의 관계

대상자의 회복과 금주 자기효능감, 입원 전 단주기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과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25, p<.001$), 금주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점수가 높았다. 또한, 회복과 단주기간 간에도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26, p<.001$), 입원 전 단주기간이 길수록 회복점수가 높았다.

Table 3. Recovery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Behaviors of Subjects

(N=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Post hoc
Insight	Poor insight ^a	33	66.70±7.29	58.61 (<.001)	a < b < c
	Fair insight ^b	55	75.25±10.62		
	Good insight ^c	35	91.83±10.53		
Age (year)	≤ 39	16	3.42±0.67	1.05 (.373)	
	40~49	47	3.45±0.60		
	50~59	45	3.36±0.58		
	≥ 60	15	3.14±0.54		
Gender	Male	107	3.32±0.59	2.78 (.006)	
	Female	16	3.75±0.53		
Education level	≤ Middle	28	3.20±0.48	1.80 (.169)	
	High school	69	3.40±0.60		
	≥ College	26	3.49±0.68		
Marital status	Married	43	3.23±0.60	2.11 (.126)	
	Unmarried	33	3.50±0.65		
	Divorce, separation	47	3.42±0.53		
Religion	Yes	86	3.40±0.61	0.70 (.484)	
	No	37	3.32±0.57		
Occupation	Yes	49	3.51±0.62	2.08 (.039)	
	No	74	3.29±0.57		
First drinking age (year)	≤ 14	11	3.53±0.58	0.43 (.730)	
	15~19	67	3.40±0.63		
	20~24	35	3.31±0.56		
	≥ 25	10	3.30±0.56		
Admission frequency	≤ 5	79	3.32±0.61	2.08 (.107)	
	6~10	22	3.61±0.60		
	11~20	11	3.52±0.44		
	≥ 21	11	3.18±0.54		
Experiences of abstinence	Yes	92	3.45±0.60	2.46 (.015)	
	No	32	3.16±0.53		
Family history of alcoholics	Yes	69	3.37±0.59	0.17 (.868)	
	No	54	3.39±0.61		

5. 대상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대상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 변수에는 단순상관관계 분석이나 단순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변수인, 병식상태, 금주 자기효능감, 성별, 직업, 입원 전 단주기간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의 범위가 .804~.916, 분산팽창계수는 1.091~1.24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병식형성 상태($\beta=0.65$, $t=9.52$, $p<.001$), 여성($\beta=0.26$, $t=4.09$, $p<.001$), 단주기간($\beta=0.24$, $t=3.56$, $p<.001$), 부정병식 상태($\beta=-0.16$, $t=-2.43$, $p=.017$), 직업 있음($\beta=0.17$, $t=2.57$, $p=.01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회복에 대해 59.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Recovery (N=123)

Variables	β	t	p
Good insight	0.65	9.52	< .001
Female	0.26	4.09	< .001
Duration of abstinence	0.24	3.56	< .001
Poor insight	-0.16	-2.43	.017
Occupation (yes)	0.17	2.57	.011
$R^2=.591$, $F=33.84$, $p<.001$			

논 의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자들을 대상으로 병식, 금주 자기효능감 및 일반적 특성과 음주 관련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회복점수는 평균 77.67점으로, 지역 사회에 있는 단주 중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Jung (2006)의 연구에서 보고된 87.74점과, 단주친목모임에서 단주 중인 알코올중독 대상자들을 연구한 Hong과 Lee (2009)의 91.63점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본 대상자들은 재발하여 입원치료중인 데 비해, Jung (2006)이나 Hong과 Lee (2009)의 대상자들은 단주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대상자의 병식은 평균 9.0점으로 입원한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 Lee, Jung과 Shin (2004)의 1.07점,

Kim 등(2001)의 5.4점, Sung, Lee, Kim과 Lee (2002)의 6.4점보다 높았다.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병식형성에 대해 Sung, Lee, Kim과 Lee (2003)는 음주로 인한 입원 횟수가 많았던 환자군에서 높은 병식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Kim 등 (2004)은 음주로 인한 입원 빈도가 높을수록 병식 점수가 높아졌다고 보고한바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재발로 인해 재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병식 형성에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알코올의존자를 위한 치료기관에서 병식형성에 초점을 둔 전문적인 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대상자의 금주 자기효능감은 40.63점으로, 정신과 전문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한 남자를 대상으로 한 Lim (2010)의 연구에서 보고된 31.78점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중독자들의 금주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Bong, 2009), Yoo (2000)는 변화동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금주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대상자들은 개방형 특성을 가진 알코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병동에 있는 알코올의존 환자보다는 변화에 대한 동기화를 촉진하는 환경에 있었기에 금주 자기효능감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회복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주 자기효능감과 회복점수 간에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어 금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회복점수가 높았다. 이는 입원한 알코올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Ji (2011)의 연구에서도 금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알코올의존자의 재발위험성이 낮아졌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또한, 금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적었다는 보고(Kim, Kim & Jun, 2009)와 맥을 같이한다. 이에 알코올의존자들의 회복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 병식이 형성된 대상자에게 회복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알코올의존자들의 회복과정에서 병식이 치료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Jun, 2008)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입원 전 단주시간이 길수록 회복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주를 목적으로 한 친목 모임에 참석한 알코올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Jung (2006)의 연구에서 단주 실천과 회복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이에 알코올의존 환자들이 단주를 경험하고 단주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 변인 및 음주 관련 변인에 따른 회복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과 직업유무에 따라서 회복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직업이 있는 군

이 없는 군보다 회복점수가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단주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복점수가 낮다고 보고한 것(Jung, 2003)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금주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여 회복과정을 촉진한다고 보고한 연구(Moos, Moos, & Timko, 2006)도 있어 성별에 따른 금주 자기효능감과 회복 차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Jung (2006)의 연구에서는 현재 직업 유무와 회복점수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Yoon (2002)의 연구에서는 직업의 종류 및 직장 내 음주 문화에 따라 회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의 유무보다는 종사하는 직종이 술과 많이 접하는 직종인가에 따라 회복이나 단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직장 내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음주와 관련하여 건강한 문화조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그밖에 음주 관련 특성 변인에 따른 회복 정도의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Hong과 Lee (2009)의 연구에서는 첫 음주시기, 알코올중독으로 진단받은 나이, 입원치료 횟수와 회복의 점수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이들 변인들과 회복의 관련성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회복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변인으로 병식상태, 성별, 직업, 과거 단주기간으로 나타났으며, 회복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병식이었다. 이는 Hong과 Lee (2009)가 알코올의존 환자들이 절환을 인식함으로써 치료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회복과정이 시작된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알코올의존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병식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금주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회복 점수가 높았지만, 금주 자기효능감이 대상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알코올의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Kweon (2002)의 연구에서 금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금주를 실현하는 것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탄력성 증진 방안으로 금주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어(Jun, 2007), 알코올의존자들이 금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원 전 단주기간과

직업유무도 대상자의 회복의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나, 알코올의존 환자가 단주를 경험하고 그 기간을 지속하도록 하며, 직업재활에 있어서도 관심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알코올의존자들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병식, 금주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특성 및 음주 관련 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회복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변인은 병식으로 나타나, 알코올중독전문가들과 간호사들은 알코올의존자를 대함에 있어 병식을 주요 문제로 다루어 사정하고 파악하여야 하며, 병식 향상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주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발을 예방하고, 금주 지속에 초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효과검증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e, I. H. (2005). *The effect of abstaining group-therapy program on depression and abstaining self efficacy of alcohol dependent in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Bong, E. J. (2009). *The effect of relapse prevention program on abstinenc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in female alcohol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Chunn, D. H. (2010). *A study on experiences of recovering alcoholics through Alcoholics Anonymo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DiClement, C. C. (1994). The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 141-148.
- Hong, J. N., & Lee, Y. H. (2009). Study in the effect of the family resilience on recovery for alcoholics. *Transactional Analysis & Psychosocial Therapy*, 6(2), 9-26.
- Ji, H. (2011). *Factors influencing the relapse risk of alcohol depend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Jun, H. Y. (2007). *(A) Plan to increase resilience for alcoholics' recove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Jun, S. M. (2008). Improvement of insight in an alcoholic inpatient by scriptotherapy. *Mental Health & Social Work*, 30, 301-331.
- Jung, K. S. (2006). *Study on ecological-system factors affecting alcoholics' recove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 National University, Busan.
- Jung, S. Y. (2003). *The relationship of sex-roles identity,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of life of the alcoholic women and general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 Sin University, Naju.
- Kim, J. H., Lee, D. K., Jung, B. J., Park, Y. M., & Kim, S. G. (2012).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characters, and drinking characteristic and motivation for abstinence in alcohol dependence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16*(1), 21-29.
- Kim, J. S., Park, B. K., Cho, Y. C., Oh, M. K., Kim, G. J., & Oh, J. K. (2001). Influence of alcoholic's insight on their abstinent outcomes for one year after discharge.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2*(7), 1052-1066.
- Kim, J. S., Park, B. K., Kim, G. J., Oh, M. K., Lee, C. S., Yu, N. J., et al. (1998). Assessing the insight status using HAIS (Hanil Alcohol Insight Scale), a newly devised scale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of insight in alcohol depen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2*(1), 127-133.
- Kim, K. C., Lee, K. S., Jung, G., & Shin, S. E.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insight level and defense mechanism in alcohol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8*(2), 115-123.
- Kim, K. H., Kim, J. I., & Jun, H. S. (2009). Correlation study on psychological stress from drinking,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in youth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1), 73-82.
- Kim, S. J. (1996). *Modeling relapse of alcoholism: Male alcoholic in-patients of psychiatric war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weon, Y. R. (2002).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group program on meaning of life and abstinence self-efficacy of alcohol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im, A. L. (2010). *The effects of a motivation enhancement program on motivation for change, insight, and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for persons with alcohol use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Mental health business guide*. Seoul: Author.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psychiatric illnesses in Korea*. Seoul: Author.
- Mock, H. S.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for change of alcohol dependents and implicit alcohol outcome expectancy to drin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Monahan, J. L., & Lannutti, P. A. (2000). Alcohol as social lubricant: Alcohol myopia theory, social self esteem and social interac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6*(2), 175-202.
- Moos, R. H., Moos, B. S., & Timko, C. (2006). Gender, treatment and self-help in remission from alcohol use disorders. *Clinical Medicine & Research, 4*(3), 163-174.
- Park, A. R. (2008). *Recovery experiences of Korean alcoholics: Being rebor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J. S., & Won, J. S. (2008). The effect of insight-oriented intervention program on the insight of alcohol dependence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2), 118-128.
- Sung, S. K., Lee, H. K., Kim, H. O., & Lee, K. H. (2003). A study of difference between insight in inpatient alcoholic patients and outpatient alcohol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7*(1), 60-68.
- Sung, S. K., Lee, J. J., Kim, H. O., & Lee, K. H. (2002). Effectiveness of inpatient treatment program on the insight and satisfaction of alcohol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6*(1), 20-29.
- Yoo, C. Y. (2000). *The motivation for change in problem drin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Yoon, M. S. (2002). Community mental health interventions for solving problems of alcohol and drug abuse. *Proceedings of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1*, 673-689.